화재에 대한 방재의식과

박 영 기
연세대교수·공박

1. 제방효과

사람은 가끔 뜻하지 않았던 재해를 당하곤 한다. 여러가지 재해 중 가장 그 빈도가 많고 중요한 것이 화재라고 할 수 있다. 화재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접근방식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근원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다.

방화가 완전무결하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최소한 화재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매일 건물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늘 화재를 의식하고 살지는 않는다. 이러한 것은 제방효과(levee effect)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홍수가 나지 않도록 강에 제방을 쌓아 놓으면 사람들은 그 제방은 안전하다고 믿고 그 제방 주위에 점차로 모여 살게 된다. 그러다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큰 비가 내리거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던 홍수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화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모든 건물은 법에 의해 방화를 위한 철저한 시설과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믿고 화재라는 재해를 거의 무시하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일로 인하여 화재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화재에 대한 우리의 두번째 접근방식은 피난에 관한 것이다. 아무리 화재를 막으려 해도 그 빈도나 크기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일어나는 화재는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방화에 대한 소치 뿐만 아니라 일단 화재가 났을 경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중 방화에 대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으로서 거의 해결할 수 있으나, 피난에 대한 것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문제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면도 같이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방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피난에 관해서는 방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따라서 피난에 관하여 촛점을 맞추고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방화문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피해를 내게 마련이고 때에 따라서는 인명피해도 수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람들은 각각 그들이 있는 위치로 부터 신속하게 건물 밖의 도로나 광장 등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에 관한 관계법이 잘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종종 인명피해가 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평소에 화재는 다른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막연한 기대의식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불을 사용하는 한 화재는 어

디선가 늘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재해에 관한 심리학에 위기효과(crisis effect)라는 말이 있다. 큰 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재해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 재해방지에 대한 여론의 형성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갖가지 방지책을 강구하는 등 일련의 작업이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점차로 그 일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재해에 대한 의식이 낮아져서 그 전과 같이 무감각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대연각 화재의 참사를 다시 기억해보자. 불이 났을 때 피난을 위한 통로, 즉 피난계단 등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없어서 그대로 희생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 이후 우리들은 관계법을 개정, 강화하는 등 피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게 되었고 피난에 관한 의식의 심각성도 낮아지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청량리의 대왕코너 화재참사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그 건물에도 피난계단이 있었지만 평소 방범문제 때문에 자물쇠로 잠궈 놓았기 때문이다. 대연각 화재를 잊지 않고 있었다면 일이 그렇게 되었겠는가?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생명존중의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재산이 아무리 중요하기로서니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는가?

이것은 꼭 지나간 날의 이야기라고만 할 수가 없다. 지금의 현실상황을 보아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피난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이 우리는 얼마나 되어 있는가? 물론 어느 건물에나 비상구 표시는 규정에 의해 다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불이 날 경우 당황한 사람들은 제 정신을 못차리고 우왕좌왕 하게 마련이다. 보통때에 비상구 표시를 의식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화재는 예고하지 않고 닥쳐오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외국 관광객이 이용하는 호텔에서나 불이 날 경우 피난의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가 되어 있을 뿐 다른 곳에서는 잘 볼 수가 없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백화점에 가면 늘 걱정이다. 백화점의 특성상 에스컬레이터를 위해 각층이 터져 있고 그 대신 불이나면 방화셔터가 내려와서

차단하도록 조치되어 있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는 방화셔터에 의해서 막히고 에스컬레이터가 시작되는 바로 옆에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곳으로 피난하도록 되어 있다.

시설 그 자체는 나무랄 데 없이 잘 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방재의식에 있는 것이다. 평상시에 이 비상구를 눈여겨 보고 다닌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평상시에는 그 비상구가 있는 지점에 매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이 비상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그 비상구라는 표시마저 전시상품에 가려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이 나면 사람들의 피난행동은 과연 어떠하겠는가? 물론 피난계단도 따로 있고 거기에 비상구 표시도 잘 되어 있지만 평상시 사람들은 대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출입하기 때문에 피난계단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잘 안되어 있는 수가 많이 있다. 더구나 단위면적당 수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인원의 동시피난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당황한 나머지 패닉현상 등으로 뜻밖의 참사를 낼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평소에 우리들의 방재의식이 희박한데도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화재훈련 참관시 학교 수업중 비상벨이 울리면 수업을 중단하고 모두 훈련에 진지하게 참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피난도 절도있게 하고 소화전과 소화기를 모두 실제로 작동하여 보고 작동이 안되는 것은 바꾸고 고치는 것을 보고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3. 방화문

방재의식의 결여로 인해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잘못이 방화문의 방치현상이다.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연기가 퍼지게 되고 또 그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연기와 불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화문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불은 예고하고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화문은 결코 어느 순간이라도 열려있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열려 있을 때 불이 나면 방화문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화문은 아무때나 열릴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불이 났을 때 잠겨 있으면 사람이 피난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을 굳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방화문은 철재를 사용하게 되어있고 특히 갑종 방화문은 을종 방화문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일반이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방화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어떤 곳에는 아예 방화문을 열어젖히고 거기에 고리를 달아서 벽에 고정시켜 놓은 경우도 있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방화문인 이상 이것을 열어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식이 먼저 고취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방화문이 너무 무거워 불편하다면 방화문의 개선작업은 그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개선작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재료의 개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방화문의 사용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구별을 하여 주는 일이다. 즉 고층건물이거나 저층건물이거나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화문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등을 두어 저층건물일 경우에는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화문을 규정하여 주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4. 맺는 말

우리는 제방효과에 따라서 화재는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결코 나에게는 닥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비록 큰 화재를 보고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하지만 그 의식은 곧 다시 희미해지고 말아서 화재는 소방서에나 관계된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고 만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언제어디서 화재를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이에 대비해 다음 두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방재에 대한 의식을 다같이 높이는 일이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때 화재에 대한 훈련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 방화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열어놓고 있거나 잠그고 있는 일이 없도록 하며 또 한편으로 방화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료나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